

【논 문】

스페인 바로크 기지주의¹⁾ 문학과 문화적 정체성*

김 춘 진
(서울대 교수)

1. 과식주의 논쟁의 발단

바로크 미학이 열정적이고 감상적이며, 회화적이고 과식적인 특질로 이해된다면 기지주의적 문체의 유희성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스페인 바로크 문예사조의 특질이다. 관념과 이미지와 사물들 사이에서 유사성과 조

* 본 연구는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1) 예지agudeza는 예리한 통찰력이나 기발한 상상력이 동반된 기지적 능력을 일컫는다. 스페인보다 일찍부터 이탈리아에서도 *acutezza*가 쓰여졌다. 기지주의의 어근이 된 *concepto* 또는 이탈리아어로 *concetto*는 *agudeza*의 대상 또는 만들어진 표현을 가리키며 영어로는 *conceit* 또는 *wit*로 쓰였다. 기지주의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으로 메넨데스 벨라요M. Menéndez Pelayo처럼 그라시아의 이론을 엄격하게 기지주의 수사학에 한정시키려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Historia de las Ideas Estéticas en España*, Porrúa, México, 1985, p.584), 고전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매너리즘으로 확대 해석하여 당대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유포된 매너리즘에 대한 체계적 사유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Curtius, E. R., *European Literature in the Latin Middle Ages*, New York, 1953, p.273.)도 있다.

응의 관계를 찾아내는 기지적인 표현을 중요한 지적 능력이자 심미적 가치로 받아들였던 기지주의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전통 중의 하나였던 바로크 문학의 주요한 단면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메넨테스 벨라요의 스페인 미학사 *Historia de la Estética en España*와 크로체의 논문 “이탈리아 기지주의 이론가들과 그라시아 *Los tratadistas italianos del conceptismo y Baltasar Gracián*” 등에서 시작된 기지주의 연구는 곧 바로크 문학 연구의 중요한 궤적을 이루어왔다.²⁾

한편으로 기지주의의 과도한 수사적 경향은 바로크 문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플라톤이 이미 오래 전에 앞서 보여준 수사성에 대한 혐오와 비판은 이성 중심적인 계몽주의가 득세하고 경험적 사실과 논리적 정확성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전통이 자리잡아가면서 꾸준히 강화되어왔다. 그에 따라 난해하고 수사적인 것 자체를 미적 원리이자 지적 척도로 삼았던 기지주의는 바로크 문학에 어둠을 드리운 주요한 단면으로 치부되었다. 그리하여 절대주의 왕실에서 군주의 변덕스러운 심사에 아침을 떠는 말재간이나 예수회가 군림하던 교회에서 민중에게 무지와 공포를 조장했다는 등 기지주의의 일반적 악영향에 대한 주장들이 대두하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지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그 부정적 측면의 이면에 내포되는 언어의 다른 측면 또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 현상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사물을 인식하는 도구인 반면 그와 동시에 재현 불능의 내재적 한계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고 인식을 왜곡시키는 장애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것이다. 그러나 심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인식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언어 기능이 지적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미적 형식을 잉태하는 창조성의 근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언어의 역설적 이중성에 기인하

2) *La Lectura. Revista de Ciencias y Letras*, 12(1912), p.247. 이후에는 E. Sarmiento, A.A. Parker, T.E. May, A. Terry, E.R. Curtius 등의 논문이 돌보인다.

는 논란거리가 유발되었다. 이른바 과식주의에 향해진 비난과 공격이 그것이다. 사실 기지주의와 과식주의는 각기 다른 실체라기보다 동일 현상의 상이한 국면에 대한 시각 차이일 뿐 분리하기 어려운 동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시아인Baltasar Gracián과 께베도Francisco de Quevedo의 수사적 산문체를 지칭하며 상상력의 기발성과 출중한 통찰력을 기지주의의 특징으로 꼽아왔던 반면, 공고라Luis de Góngora와 그 추종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현학성과 수사적 과잉에 대해서는 과식주의라는 별개의 개념을 상정해왔다. 이미 그라시아인은 께베도와 로빠 데 베가Lope de Vega를 기지주의자conceptista로, 까리요Carillo, 공고라와 빠라비치노Paravicino를 ‘현학적bizarros’ 또는 ‘박학적cultos’으로 구별하여 기지주의-과식주의 논쟁의 전조를 알렸다.³⁾ 무엇보다 과장된 수사에 라틴어 어휘와 구문을 지향한 현학성이 두드러진 과식주의에 대해 당대의 문장가들과 현학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비난에서 시작된 과식주의/기지주의 논쟁은 마침내 두 가지 문체가 상이한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 같은 오해를 증폭시켰던 것이다. 논쟁의 발단은 께베도와 공고라의 대항에서 시작되었다. 반종교개혁 시대의 인문주의자 까스칼레스Cascales가 공고라를 “집을 짓되 열쇠를 만들 줄 모르”며 스페인 시를 파괴한 이단 마호메트라고 힐난하고 한 것처럼⁴⁾ 반세미티즘적이었던 께베도는 공고라를 조롱하며 “공고라란 작자여, 내 시에 돼지 비계를 무쳐 그대를 바르리다/그래야 내 시를 안 물어뜯지 않겠나Yo te untaré mis versos con tocino,/porque no me los muerdas, Gongorilla,”(돼지 고기 튀김은 유쾌인 음식)라거나 “겨우 유대교 랍비인 주제에/ 어찌 희랍어를 비난하는가?¿Por qué censuras tú la lengua griega,/siendo sólo rabí de la judía?”라며 차라리 절필하라고 비아냥거렸다.⁵⁾ 로빠 데

3) Coster, A., *Baltasar Gracián*, trad. Ricardo del Arco, Institución Fernándo el Católico, 1947, p.247.

4) 'Epístola X,' *Cartas filológicas I*, Espasa-Calpe, Madrid, 1930, p.220.

5) Ana Martínez Arancón, *La batalla en torno a Góngora*, Bosch, Barcelona, 1978, p.83.

베가도 께베도를 거들었다. 로뻔 데 베가와 공고라의 우정과 반목은 17세기 스페인 문학사의 한 장이라고 할만큼 전설적이거니와 로뻔 데 베가가 미리 『고독Soledades』의 원고에 접하고는 출간 포기를 종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에 분개한 공고라가 “『고독』의 난해함을 어둠으로 이해한 로뻔 데 베가야말로 제 집에 불도 밝힐 줄 모르는 자pues imputa obscuridad/ a una opaca Soledad/quien luz no esciende en su casa”라고 공박하자, 로뻔은 “마땅히 해야 할 불이 아니라 코에, 이마에 또는 귀에 분칠하는 여자una mujer que se afeita, habiéndose de poner color en las mejillas, lugar tan propio, se la pusiese en la nariz, en la frente o en las orejas,”(287-8)라며 공고라의 수사과잉을 비난했다.⁶⁾ 현대에 와서도 기지주의/과식주의 논쟁을 쟁점화시키며 형식적 난해성을 특질로 하는 공고라의 문체에 비해 께베도의 기지주의는 세련되고 다층적인 의미의 기지concepto를 구사한다고 구별한 빼달M. Pidal의 경우⁷⁾에서처럼 공고라에 대한 께베도의 공격적 입장이 지지를 받는가 하면, 27세대 시인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전위주의 사조와 더불어 공고라가 복권되기도 하는 등 논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야노바Antonio Villanova가 처음 지적했던 대로 기지주의와 과식주의는 동일한 심미적 목표를 추구한다.⁸⁾ 양자는 다같이 언어의 굴

6) Orozco Díaz, E., *En torno a Las Soledades de Góngora. Ensayos, Estudios y Ediciones de textos críticos de la época referente al poema*, Universidad de Granada, Granada, 1969. pp.287-288.

7) Castilla, *La tradición. El idioma*, Buenos Aires, Austral, 1945, pp.221-232. 바르케Frank J. Warnke도 바로크가 쉽게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미학적 양상들을 포괄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바로크 미학 논쟁에 있어 두가지 두드러진 조류가 있어왔음을 지적했는데, 그 하나는 소박하고 기지적이며 이지적이며 역설적인 경향으로 John Donne과 Quevedo가 이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장식적이며 감정적이며 과장된 스타일로 Crashaw, Marino, Gongora등이 속하는 부류라고 했다. 그리하여 전자를 형이상학적 시문체로 후자를 보다 전형적 바로크를 지칭하는 고차 바로크 High Baroque로 구분했다. (*Versions of Baroque. European Literature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Heaven & London, 1972, pp.11-12).

절성과 신축성을 극대화하여 심미적 유희를 실험했으며 그들이 다룬 소재가 다르고 역사적 체험이 다르더라도 한 시대 한 문화의 지적 토양을 배경으로 생성된 것이었다. ‘과식적culterano’이라는 말이 카톨릭 교회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루터의 관형어인 luterano를 연상시키는 다분히 경멸적 의미로 쓰여지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지식과 권력 엘리트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권력 갈등 양상을 내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지주의와 과식주의는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차별적이기보다는 공통된 역사적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까리요Luis Carrillo y Sotomayor(1583-1610) 등 이른바 과식주의파는 박식하지 않고는 심미적일 수 없으며 시에서 지적 미적 자극을 강화하는 난해함이 더 이상 악덕이 아니라 미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식주의도 시적 기능을 청각적 효과나 아리스토텔레스적 미메시스 유희성에 한정하지 않고 지적 상상력과 정신적 유희의 촉진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기지주의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⁹⁾

2. 기지주의의 인식론적 지평

과식주의 논쟁은 그 자체로 미학적 패러다임 변동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 공고라와 계베도의 논쟁이 패러다임 변

8) “Preceptivas españolas de los siglos XVI y XVII,” *Hisotiria General de las Lliteraturas hiapánicas*, ed. Guillermo Díaz-Plaja, Gredos, Madrid, vol. III, 1953, pp.567-692.

9) 과식주의 시학의 근간은 아무래도 까리요의 *Libro de erudición poética* (1610)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사로 까레데르는 까리요의 박식한 난해함이 가미된 ‘무지한 자들에게 혹독히 난해한 극단적 독창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고라의 문체가 근본적으로 기지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확인했다(*Estilo Barroco y Personalidad Creadora. Góngora, Quevedo, Lope de Vega, Cátedra*, Madrid, 1974, pp.42-43).

동의 전조였다면 그 결과는 그라시아의 기지 이론 정립에서 매듭지어진다. 공고라(1561-1627)와 껀베도(1586-1645)와 그라시아(1601-1605)은 동시대적 미학 현상을 풍미한 일가이면서도 그들 사이의 세대간 시대 편차를 여실히 드러낸다. 공고라가 고전주의의 인식론적 위기를 감지한 최초의 작가 중의 한사람이라면 껀베도는 위기와 대결해 전투적 해학 정신과 패배주의의 양면을 함께 보여주었으며 그라시아는 그러한 상황을 수습하며 이론 체계를 세운 마무리 작업을 해냈으니 말이다. 특히 그라시아는 인습적 사유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해 개인적 생각을 능동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추구한 근대적 지각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공고라와 껀베도는 물론 세르반테스, 깔데론, 띠르소 데 몰리나, 로빠 등 바로크 시대 전체를 풍미하게 된 기지주의 문체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로메라 나바로Romera-Navarro는 그라시아를 가리켜 ‘현학적인 과식주의나 난해한 기지주의에 결부시키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칭하면서 관념이나 형식에 있어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부엔구스토 buen gusto(sentido)’를 강조했다.¹⁰⁾ 그러한 절충적 개념으로 그라시아

10) “Introduction” *El Crítico* (ed.), Philadelphia-London, Oxford Univ. Press, 1938, p.30. 그러므로 그라시아의 기지론은 혁명적이기보다 타협적이다. ‘부엔구스토 Buen Gusto’는 우리말로 바꾼다면 멋이거나 풍류에 해당할 것이다. 그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부엔구스토’의 멋은 근대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르네상스기의 인간적 정형이 기독교적 궁정인에 있었다면 부엔구스토는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간의 자질이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중시되었던 기사 무예 능력 대신 학식과 유머 문제 등을 골고루 갖춘 문무 겸비가 궁정인의 자질로 요구되었거니와, 부엔구스토는 보다 세련된 지적 능력과 언어적 기지와 심미적 자질을 의미한다. 그것은 특정한 계급의 획일적 소양이 아니라 평범한 교양인의 상식적 품성이다. 혈통이나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으로 결정될 일이다. 부엔구스토는 고정된 가치나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황 의존적이며 주관적이다. 그것은 유행이 만들어 내거나 사회에 의해 규정된 고정적 가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신축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엔구스토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말하

은 기지를 논리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조합된 일종의 창조적인 지력 *intelecto*로 인식했다. 메이May는 이를 해석하여 “변증적인 *dialectic* 것과 다르고 수사적인 *rhetic*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적 행위 단위”라고 이해했다.¹¹⁾ 그라시아에게 있어서 지각과 이해 능력의 중심은 재치 *ingenio*에 있다. 재치는 이해 *entendimiento* 능력이자 예지 *agudeza*의 원천이고 심미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기지는 상극적 개념들의 부조화와 갈등을 조화와 화해의 관계로 치환시킨 언어들이었다.¹²⁾ 그라시아는 기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기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즉 이해 행위로 사물들 사이에 있는 조응 관계를 발굴해내는 것이다. 이 조응은 모든 기지에 일반적이며 모든 재치 기교를 포괄한다. 그것은 대항적이든 불일치적이든 그 자체가 사물들의 기교적 연결이다.

“De suerte que se puede definir el concepto: es un acto del entendimiento, que exprime la correspondencia que se halla entre los

자면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근대적 윤리학의 관점을 제시한다. 근대를 맞는 서구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동시에 근대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적 조건이라는 말이다. 꼬레아 깔데론 Correa-Calderón도 *Agudeza y arte de ingenio*의 미학과 이론은 모든 전통과 모든 조류를 종합해 미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Baltasar Gracián, *Su vida y su obra*, Gredos, Madrid, 1961, pp.165-167). 17세기 문예 이론과 르네상스 문예이론의 연속성을 강조한 테리A. Terry도 공고라와 계베도는 표피적이고 장식적인 언어와 달리 유기적이고 심층적인 언어를 발굴한 사용자라며, 그라시아인이야말로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르네상스 문예이론의 언어 영역을 극대화한 이론가라고 평가했다. (“Continuity of Renaissance Criticism: Poetic theory in Spain between 1535 and 1650,” *BHS*, XXXI, 1954, p.36).

11) “An interpretation of Gracián's *Agudeza y arte de ingenio*,” *Hispanic Review*, XVI, 1948, p.273.

12) 16세기를 풍미한 부르노Giordano Bruno(1548-1600)의 자연 철학은 르네상스기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니와, 차이를 초월하고 다른 것을 같게 하는 ‘상극의 조화Coincidentia oppositorum’ 원리가 상이한 것들을 유사성으로 통합하는 이미지 발굴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그라시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할만하다.

objetos. Esta correspondencia es genérica a todos los conceptos, y abraza todo el artificio del ingenio, que aunque éste sea por contraposición y disonancia, aquello mismo es artificiosa conexión de los objetos.”¹³⁾

그러므로 기지를 유발하는 기교는 심미적 행위인 동시에 사물들을 관계짓는 개념화이며 지적 행위이다. 또한 기지의 대상은 사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모든 관계들을 포함한다. 진리는 심미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심미적인 것은 도덕적 선과 별개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지가 반드시 은유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17세기 문예학은 르네상스 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르네상스기에는 세계를 ‘보편적이고 공중적 필사체’(Religio Medici, 1643)로 상정하고 신이 암호화하고 인간이 풀어야 할 거대한 책으로 여겼다. 유사성에 근거한 예지 이론은 서로 다른 사물간의 비교를 내포하는 르네상스 메타포 개념과 다를 바 없다. 르네상스 전통에서 이해하면 기지는 그러한 암호화된 세계를 통찰해내는 능력과 자질인 셈이다. 우주는 존재계를 다중적으로 통합하는 거대한 조응의 망이며 시인은 그에 상응하는 조응 관계의 발굴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¹⁴⁾ 그러나 17세기 문예학의 문제는 테리 Arthur Terry가 지적한 대로, 은유의 장식적 개념과 유사성 개념, 통상 언어와 비유 언어 개념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려 함으로써 르네상스적 가치와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 요구 사이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한 데 있었다.¹⁵⁾

이에 대해 메이 T.E. May는 그라시안의 기지 개념은 명백히 스콜라적

13) *Agudeza y arte de ingenio*, (ed.) Correa Calerón, Clásicos Castalia, Madrid, 1969, I, 55-56.

14) Mazzeo, J.A., ‘Metaphysical Poetry and the Poetic of Correspondenc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XIV(1953) pp.222-223, 230.

15) “A Note on Metaphor and Conceit in the Siglo de Oro,” *BHS*, XXXI, 1954, p.57. 그것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부단한 대립과 화해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이면서도 무엇보다 고전주의 전통이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⁶⁾ 상극간의 조응에 기초한 기지 개념은 형이상학적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며 경험적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다. 새로운 문체의 조류는 논리적 조응의 미학인 동시에 모순된 관계의 조응 미학이라는 상반된 이중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이에 의하면 기지적 비유는 현실을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비스러운 곳으로 감추어가면서 오히려 작가의 자아와 작품, 그리고 작품과 현실 사이에 균열을 드러내게 된다.¹⁷⁾ 그리하여 그라시아의 기지주의 미학은 고전주의적 균형과 명료성 그리고 조화의 원리와는 반대로 상극적으로 대립하는 차이와 불균형 그리고 불확실성의 예술적 조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적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사실적 언어, 이성적 언어가 아니라 비이성적 언어에 의해 세계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지주의는 인식론적 위기 시대의 지적 동요를 반영한다. 푸코M. Foucault에 의하면 근대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에는 조응의 원리에 근거한 전고전주의 에피스테메와 달리 차이와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계보의 에피스테메가 출현했다. 기지는 여전히 유사성과 조응의 에피스테메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사물 사이의 차이와 논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이기도 한 것이다. 상극적인 사물 사이의 조응을 찾아 경이와 감탄을 유발시키는 미학적 기지이지만 조화로 은폐된 상극적 차이가 기지적 미학의 근본인 것이다.

그것은 조응하지 않는 사물관계, 조화롭지 않은 세계, 신이 없는 우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스페인인들의 정신과 종교적 태도에서 가능했던 미학이었다. 같은 기지주의의 사조적 조류를 타고 가면서도 돈의 형이상학시는 서구 기독교 사회의 전통적 우주관이 붕괴하고 새로운 기계론적 우주관이 나타나는 시대의 정신적 불안을 풍미하고 있었다. ‘네가 아무 것

16) Gracián's Idea of the *Concepto*, HR, XVIII, 1950, p.29.

17) *ibid.* 29-30. Note 36.

도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믿을 수 없는 한 결코 신을 믿을 수 없는,'(*Sermones*, VIII, 332-333)인간들, '수수께끼를 푸는, 당혹스러운,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영혼'들은 이제 물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험주의 신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요구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불멸을 향한 유일한 인간적 희망마저 박탈당한 모습으로 노래되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똑같은 위기 시대를 산 스페인 바로크 작가들은 서구 사회의 정신적 동요에서 한 걸음 물러앉아 카톨릭 교회의 우주관에 변함없이 안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콩고라도 께베도도 그라시아노도 카톨릭 신학과 세계관을 넘어설 수는 없었으며 근대 사회의 변화 물결에 동참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서구 근대 사상이 나와 대상 세계, 이성과 심미안과 도덕률을 차별화해 나가던 것과는 상반되게 그라시아노는 미와 도덕과 진리를 통합하여 신과 인간의 조응관계를 연장시키고 있었다. 스페인 기지주의는 여전히 조응의 원리에서 세계를 조망하고 이해한 섭리론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양식은 성/속의 세계가 분리될 수 있었던 서구에서 가능했고 그렇지 못했던 동양세계나 또는 동방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에서 변성할 수 없었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정신과 달리 오로지 성스러운 카톨릭 사회였던 스페인의 바로크 미학은 아이러니조차 구원의 이념으로 화해시켰던 것이다.

3. 위기 시대의 미학

그렇다면 패러다임 변동을 촉구한 역사적 위기란 무엇인가? 문예사조적 관점에 한정시켜 본다면 그것은 스페인 고전주의 시대의 언어가 맞겨진 고갈의 위기를 반영한다.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확장된 문자문화

18) Marray Roston, *The soul of wit. A study of John Donne*, Oxford, Clarendon, 1974, p.219.

시대가 도래해 유럽 각국 언어들이 문법적으로 완성되고 어휘가 확대되고 문장력이 강화되면서 르네상스기가 지적 번성을 누렸다면, 그로부터 근 한 세기 뒤에 나타난 공고라의 탈진한 신화와 매너리즘적 언어, 껍데기의 그로테스크한 표현적 굴절, 그라시아의 초일상적 알레고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언어가 맞게 된 위기 현상에 대한 대응 양식들이다.

특히 공고라의 과식적 언어와 현학적 수사는 전환기적 시대의 예술이 특징인 정신적 불확실성과 함께 모든 형식을 혼용하고 융합하는 운명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의 작품에는 르네상스 예술정신과 매너리즘 기법 그리고 바로크 이데올로기가 혼용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 고갈의 시대에 표현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너리스트요, 궁정 사회의 문화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바로크 이념을 대변하기도 한다. 존스 R.O. Jones는 해상 조난자의 순례를 그린 공고라의 대표작 『고독 Soledades』에서 르네상스기를 풍미한 네오플라토니즘 정신을 확인하고 있다. 철학적 기술이 아니더라도 신의 창조적 풍요로움을 깨달을 때의 환희가 배어있는 『고독』은 그 자체로 자연의 미와 순수성과 영원성에 대한 찬가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조직을 지탱하는 조화의 원리에 대한 찬가라는 것이다.¹⁹⁾ 그러나 환희와 찬가도 지나치면 우수가 되고 반어가 된다. 『고독』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르네상스적 조화가 균형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보

19) *Poemas de Góngora*, Cambridge Univ. Press, London, 1966, pp.32 & 37. 같은 맥락에서 파커는 공고라의 기지주의 미학을 15세기 플라토니즘과 16세기 자연철학적 네오플라토니즘과 유사성을 갖는 ‘조응의 철학 philosophy of correspondences’과 연결짓는다(*ibid.*, 81).

20) 일련의 일화들과 서정적 자연 묘사로 이루어진 『고독』에는 4가지 각기 다른 형태의 공동체들이 제시되어 있다. 양떼와 사냥꾼들이 이룬 산 속의 공동체, 경작지의 중심에 있는 시골 마을(주인공이 초대받은 곳이기도 하다), 어업, 공예업, 원예업으로 먹고사는 해변가의 일가족, 그리고 성곽 속의 봉건 사회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공간의 편력 과정에서 공고라는 두 세계를 극명하게 대립시킨다. 16세기를 통해 팽창 일로에 있었던 스페인 제국의 궁정 사회와 도시들이 순례자 주인공이 소속된 기존 현실이라면 그의 순례과정에서 조우하게 되는 세계는 평등한 자급자족적 공동체요 구성원들이 남녀노소가 교감하는 자연경제 사회이다. 그것은 목가적 전원 현실이 아니라 이상

카치오 유형 또는 까스띠예호Castillejo식 15세기 풍 중세 도덕주의와 몬테마요르J. Montemayor y Villegas의 목가적 르네상스 정신이 뒤섞여 있는가 하면, 전 시대와 결별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듯 신화를 조롱과 유머 또는 수사적 장식으로 사용하는 파격적 양식을 보여준다. 『폴리페무스』에서도 시칠리아의 목가적 전원은 폴리페무스로 의인화된 인간 본성이자 파괴적 자연의 힘에 의해 무너진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노래한 목가적 전범이나 르네상스 이상주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폴리페무스』는 물론 『고독』에서 서정시와 서사적 장르의 혼용, 난해하고 복잡한 구문 구사와 기지주의적 수사 등으로 르네상스 전통과 결별하는 새로운 문학적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그러한 패러다임이 은유, 대귀와 조응, 은닉과 암시(elusion/alusion) 등 기지주의의 수사적 토대에서 출발한 것임은 물론이다. 몰로Mauricio Molho는 공고라의 언어를 가리켜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일의적 의미 전달체로서 경제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언어의 자연적 기능과 배치되는 것, 즉 의미의 다중성을 추구하고 표현의 모호성을 배가시키는 언어로 정의했다.²¹⁾ 공고라의 난해성은 미로와 같은 의미의 축조물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예지agudezza의 체험에서 기쁨을 얻고 덕성을 확인하는 매너리즘 미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²²⁾ 뿐만 아니라 공고라의 예술은

향에 불과하다는 깨우침, 그것은 현실로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고독』은 결단 세련된 궁정 사회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위적으로 상상된 목가적 전원세계에 대한 풍자와 냉소를 담고 있다. 『고독』의 배경은 목동으로 위장한 귀족들의 놀이터였던 목가소설의 전원과 달리 실제 촌부들이 살아가는 허름한 촌락이다.

21) *Semántica y poética(Góngora y Quevedo)*, Crítica, Barcelona, 1977, p.37.

22) 콜린 스미스Colin Smith는 『폴리페무스』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느 특정한 사안[풍부한 각운]에서 공고라의 기교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설사 처음에는 매우 흥미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폴리페무스』가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여기에는 소리의 어떤 우연한 결합도 없다. 그 기교는 너무도 철저히 구성되어서 그 축조 과정이 범상

기지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복잡하고 정교한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상이한 이미지들 사이의 조화와 상응관계를 찾고 역설적 대조 가운데 주체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의 공고라라고 할 수 있는 마리노Giambattista Marino(1569-1625)가 단순히 장식적인 기지들을 구사했다면 스페인의 마리노라고 불렀던 공고라는 주체를 통합하고 통제하는 유기적 기지를 구사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²³⁾ 공고라의 기지주의적 이미지 통합 능력은 생물과 무생물, 신과 인간, 대지와 바다, 사랑과 죽음을 보편적 조응에 통합시킬 수 있었으며, 존재론적이고 논리적인 범주들, 자연세계의 구조적 구분들을 뛰어넘어 기지의 예술은 감정과 사유를 조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죽음을 하나의 이미지에 통일적으로 융합한 『폴리페무스』는 훌륭한 예이다. 그래서 “공고라의 시는 매우 감각적이지만 동시에 그 이상 지적인 것도 없다”고 했다.²⁴⁾

공고라의 기지주의가 예고하는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은 구조적 맥락에서도 파악된다. 이를테면, 『폴리페무스』에서는 시 창작 원리를 자연 창조와 대등하게 병렬시킨 구조가 확인된다. 자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무스의 괴기한 노래와 공고라 자신의 시 자체가 대귀를 이루며 병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 대귀에서 폴리페무스의 노래는 악과 불화를 본질로 하는 자연의 힘 또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편재하는

한 인간들에게는 그저 연구할수록 신비스러워지고, 더더욱 신성한 영감을 받는 것이다. “Rich Rhyme in Góngora's *Polifemo*,”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XLII(1965) p.112.

23) 역사적 의미에서도 별로 알려지지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공고라의 위상은 당대의 궁정에서 호응을 얻고 유럽 전역에서 호응을 명성을 누렸던 마리노의 위상과 대조적이다.(*ibid*, 18-19).

24) Alexander A. Parker, *Polyphemus and Galatea. A Study in the interpretation of a Baroque Poem*,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77, p.80. 그런 의미에서 공고라의 시는 형이상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미스James Smith는 형이상학적 기지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형이상학적 문제에 답을 구하는 기지를 의미한다면, 바로크적 기지는 전체와 부분이 아무런 관계없이 분산적이고 장식적인 기지라고 구별했다(“On metaphysical poetry,” *Shakespearian and other Essay*, Cambridge, 1974, p.276).

원죄를 상징하는 데 대해 시인의 노래는 악을 극복하는 조화의 힘으로 찬송된다. 폴리페무스에 대한 갈라테아의 상징적 승리는 바로 그러한 시의 완성과 승화를 의미하는 것이다.²⁵⁾ 그것은 시인의 시가 궁극적으로 자연을 극복하고 완벽한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며 이제 미적 근원은 미메시스보다 형식의 창조에 있다는 새로운 미학 패러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독』에서도 현실 재현성보다는 언어 형식의 창조성을 지향하는 자기목적적 예술 경향이 두드러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제 공고라는 고전주의적 전범과 결별하고 새로운 미학적 규범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콜라드Andrée Collard는 『고독』 집필기(1610-21)를 전후해 시인을 예언자적 시성으로 인식하던 교육적 시학 전통에서 시인을 순수 탐미주의자로 인식하는 유태주의적hedonistic 시학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공고라를 공리성을 배제한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로 규정했다.²⁶⁾ 그린Otis H. Green도 16세기말과 17세기초를 전후하여 영국에서처럼 스페인에서도 새롭고 매력적이며 복잡한 양식이 요구되었으며, 주제가 형식이 아니라 기지에 기여해야 하는 경향 즉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위대한 문학의 본질로 정의했던 ‘간단한 언어로 극단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는 것’에 식상한 독자들이 요구하던 대로 ‘명철한 새로운 역설로 예리하게 다듬어진 언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경향을 인지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 공고라였다고 지적했다.²⁷⁾

따지고 보면 과식주의 논쟁의 배경에는 17세기 들어서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스페인 문단의 문예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반영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 문예규범인 도덕적 목적성을 강조하는 전통 문예 규범과 새로 등장한 심미주의적 창작 욕구 사이의 괴리를 의미한다. 이 무렵 시학 이론을 대변하는 로페의 『신 연극 예술Arte nuevo de hacer

25) Foster, D.W. & Foster V. R., *Luis de Góngora*, Twayne, New York, 1973, pp.132-133.

26) *Nueva poesía: conceptismo, culteranismo en la crítica española*, Castalia, Madrid, 1967, p.102.

27) *HR*, XXVII(1959), pp.413-422.

comedias』는 연극의 대중성과 오락성을 강조해 상업화를 지향했고, 까리요는 『시 총서 *Libro de la erudición poética*』에서 세르반테스는 『돈 키호테』에서 각기 문학의 도덕적 목적성이 자기기만적인 것이요 재현의 원리는 이율배반적인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띠르소도 『톨레도의 별장 *Los Cigarrales de Toledo*』에서 문학의 심미적 자율성을 강조해 보여주었던 것이다. 공고라의 과식적 언어도 자연의 모방적 재현과 예술의 교육 목적적 예술 원리를 근간으로 호라티우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추종했던 고전주의 미학이 시험받던 시대의 미학적 변화 징후였던 것이다. 공고라는 바로 이러한 전환기의 미학적 가치 혁명의 현실을 통찰하고 기지적이고 과식적인 문체 혁명이 단순히 문장구성의 기술적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작품으로 웅변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고라의 미적 사유 속에는 문예사조적 패러다임 변동의 긴장감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적 위기감과 문체의식이 배어있다. 몰로 Mauricio Molho는 합스부르크 왕조 치하의 스페인에서 공고라의 시는 토지와 연금을 수수하는 봉건적 지배계급이 추락해 가는 권력과 명예를 정당화하려는 수사적 책략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인 자신의 지위를 이상화시키는 은유적 이미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기지주의야말로 현실을 시인의 의지대로 날조할 수 있는 특권적 비유법이었으리라는 것이다.²⁸⁾ 사실 『고독』은 귀족의 지위에 상응하는 풍족한 영지를 얻지 못하고 그에 어울릴 지위도 얻지 못한 공고라처럼 불행하게 소외된 하층귀족의 심리적 박탈감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²⁹⁾ 여기서 공고라는 세르

28) *op.cit.*, p.27.

29) 1609-1617년은 궁정에 복귀하기전까지 공고라의 생애 중 가장 적막한 세월이었으며 『고독』은 이 무렵의 공고라의 심리적 내면을 반영하는 대표적 작품이다. 오로스코 디아스 Emilio Orozco Díaz도 공고라가 순전히 예술적 재능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독』을 창작하였으리라는 가정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고독을 즐기고 싶어했던 정신적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생겨난 바로크적 기질이 『고독』의 창조적 원동력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Espíritu y vida en la creación de las *Soledades* gongorinas(Por qué se escribieron y por qué no se terminaron," *En torno a Góngora*,

반테스의 시대적 우수와 상통하고 있으며, 주제와 형식의 양면에서 『돈끼호페』와 같은 소설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메시스적 언어의 고갈에서는 물론 서사적이고 이상적 주제의 지부화에는 몰락한 귀족 계급의 정신적 고갈이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카치가 지적했듯이 환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게 환멸로 귀결되는 것이 서사시와 구별되는 소설의 특징이라면,³⁰⁾ 기지주의는 이상화의 미학에 대응하는 환멸의 미학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4. 미학과 이데올로기

공고라에 비하면, 위기에 대응하는 계베도의 반응과 태도는 한결 보수적이었다. 카톨릭 보수 사회의 주류 계층에 속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문학적 관점에서도 계베도는 도덕성과 교육적 기능을 여전히 불가침의 가치로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위기의 미학은 히스테리컬한 현실 비판과 사회 풍자로 나타난다. 공고라가 과식적 언어 유희를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면 계베도는 아예 언어에 도취되고 눈멀어 있었다. 공고라가 자신의 언어를 한 걸음 물러서 고독하게 뿜내며 바라보고 있었다면, 계베도는 자신의 언어가 얼마나 그로테스크하게 기지적인가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외자적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본 공고라에 비해 현실에 밀착해 간헐 있었던 계베도가 사회에 대한 풍자에서 한결 혹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³¹⁾ 공고라는 아웃사

(ed.) Angel Pariente, Júcar, Madrid, 1986, pp.268-269).

30) 소설의 이론, p.20

31) 계베도의 연가들이 Lisi와의 연사처럼 시인 자신이 연루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면 공고라는 Acis와 갈라페아, 앙헬리나와 메도로 사이의 사랑처럼 남들의 사랑을 국외자적 시각에서 관찰한다. (*Gracián meets Gongora. The Theory and Practice of Wit*, M.J. Woods, Aris & Philips, Warminster, 1995, pp.116-117).

이더였기 때문에 현실을 떨쳐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궤베도가 공고라의 난해성을 비난했지만 공고라의 난해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미지의 미학 양식에서 불가피한 특질이라는 점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은 바로 궤베도 자신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궤베도의 무지는 공고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고라가 박학한 난해성으로 내용의 문체변화를 모색했다면 궤베도 자신도 형식의 혁신을 모색하며 기지주의의 문체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라시아니 지적한대로 공고라가 박식하고 현란했던 데 대해, 궤베도가 기지주의적이었다면 궤베도야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지주의 미학 혁명의 진정한 투사가 되어 있었던 셈이다.³²⁾

그러므로 궤베도에게서 르네상스적 언어의 균형과 명료성과 조화를 이미 깨트리는 파격적 수사법을 확인하는 것은 이상스러울 것이 없다. 풍자와 독설 그리고 해학으로 점철된 궤베도의 소설과 산문들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재교육하고 일그러진 현실을 개혁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기보다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그로테스크하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꾼』에 등장하는 사회 각 계층의 인물들은 여지없이 그로테스크하다. 사회적으로 금지된 신분 상승을 위해 칠전팔기 용납 못할 수단을 다 써보지만 결국은 시궁창으로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빠블로스는 물론, 궁핍과 도덕적 몰염치의 극치를 보이면서도 말채간만은 기발한 라틴어 교사 라까쁘라La Capra에 대한 묘사에서도 궤베도의 그로테스크한 기지적 언어는 돋보인다. 그러한 행위와 의식의 모순, 존재 가치의 이율배반을 드러내는 데 기지적 수사어는 더없이 효과

32) 패터슨 K.G.Patterson도 궤베도의 소네트를 분석하면서 16-17세기 보편화되었던 네오플라토니즘경향과 기사도 연애의 전통이 지속되고 인습화되고 진부해진 가운데 당시 독자들이 과거문학의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체험의 표현과 포착이라는 두가지 실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궤베도 연시의 기지라고 설명했다. ("Sutilezas del pensar in a Quevedo's sonet," *MLN*, 81(1966), pp.141-142).

적인 것이다. 조카 빠블로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망나니 아저씨 람뽀론이 내심 드러내고 싶어하는 ‘공직자’의 명예에 대한 자긍심과 외견상 겸양 사이에서 겉과 속, 진실과 위선 사이의 극명한 대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눈부신 햇살과 눈부실수록 짙은 그늘 사이의 대조일 것이다. 스피쳐Leo Spitzer는 궤베도야말로 스페인의 영광과 그들의 명암을 드러낸 바로크 예술의 진수이며 그의 성공은 무엇보다 마페오 알레만의 도덕주의를 장려 지낸 데 있다고 했다.

궤베도의 지고한 예술적 가치는 세속적 욕망과 그로부터의 도피, 속세와 영원, 삶과 피안, 세속성과 신앙 사이의 긴장을 극대화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스페인의 작렬하는 태양 아래 가장 음울한 수도원과 가장 암울한 근대의 인간들이 탄생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유쾌하게 승리에 도취된 피카리즘의 눈부신 햇살 한 가운데 은둔의 땅거미를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궤베도의 예술적 성과는 연이은 모험 편력 끝에 제시된 알레만M. Alemán의 진중한 도덕주의를 르네상스 소설로 희미하게 윤곽을 그린 하나의 가느다란 장례 초상화로 환원시켰다는 데 있다.³³⁾

교리와 현실 사이의 간격, 위선과 진실 사이의 현격한 괴리, 겉과 속 사이의 도덕적 이율배반이 강렬한 대조법과 아이러니, 그로테스크한 과장법과 표현주의적 비유는 도덕적 긴장감과 더불어 심미적 긴장을 유발 시키기에 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주의의 미학적 긴장도 스페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궤베도의 그로테스크한 표현주의적 미학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흔히 궤베도의 사상적 배경은 네오스토이시즘으로 이해되어왔다. 『군주의 지표Norte del Princip e』를 집필한 리호Juan Mártir Rijo(1592-1642)와 더불어 17세기 스페인 스토아주의를 대표했던 궤베도는 에피큐로스Epicuro의 이론보다는 세네카 사상을 추종하고 있었으며, 세네카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스토아 사상을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접목시켰다. 스페인의 스토아주의는 아파테이

33) “Sobre el arte de Quevedo en el *Buscón*,” Francisco de Quevedo, (ed.) Gónzalo Sobejano, Taurus, Madrid, 1978, p.127.

아patheia를 외친 헬레니즘 문화의 스토아주의와는 다르며 개인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 그것은 궁핍한 현실에 대한 개인의 현실 도피 심리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금욕적 실천주의를 추종하는 카톨릭 교회 이념과 반종교개혁의 윤리 정신에 지극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실로César Silió는 계베도의 정치적 시각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Ego sum via, veritas, et vita’라고 한 그리스도를 군주의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군주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낭떠러지가 아니라 정도를, 죽음이 아니라 삶을 민중에게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³⁴⁾ 계베도는 세네카를 자신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추앙하면서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팅하우젠H. Ettinghausen도 *La Luna y la Sepultura*를 분석하면서 계베도의 스토아적 이상이 신의 깨달음, 자비, 섭리에의 믿음, 기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의 복종 등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⁵⁾ 말하자면 스토아 철학을 통해 기독교의 금욕적 도덕률을 합리화하고 기독교적 구원의 진리를 통해 스토아적 염세주의를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스페인 세네카주의가 이탈리아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거나 유럽 사상 조류의 일반적 틀 안에서 생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또 계베도가 프로테스탄트적 스토아주의자 유스투스 립시우스Justus Lipsius와 각별한 영향관계에 놓여있더라도, 네오스토이시즘은 무엇보다 카톨릭 전통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³⁶⁾

34) *Marginado y tiempo*, Espasa-Calpe, Madrid, 1946, p.114.

35) *Francisco Quevedo and the Neostoic Mov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2. p.91. 그러나 헤이든 H. C. Hayden은 세속적 스토아주의 사상과 기독교 윤리의 화해는 네오스토이시즘의 보편적 특징이다(*The CounterRenaissance*, N.Y., 1950, p.79).

36) 스토이시즘을 스페인 전통으로 이해하는 국수주의자들도 있다. 스토아 정신은 금욕주의적이고 영웅적인 스페인 무사정신의 밑바탕을 이루었으며,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계베도를 포함한 몬타노 Arias Montano, 엘 브로센세 El Brocense 등 탁월한 사상가들이 스토아 사상을 부활시켜 뿌리를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스트로A. Castro는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그러한 께베도의 태도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귀족 정신을 회복하고 반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적 도덕적 관점 아래 중세와 고전 사상을 부활시킨다. 『사기꾼』에서 주인공 빠블로스는 신분 상승을 위해 온갖 술책을 다 부려보지만 결국 모두 허사가 되고 그에게 내뱉아지는 응징적 경구는 바로 “관습이 안 바뀌면 거처만을 바꿔본들 결코 신분 상승은 없다(Nunca mejora su estado quien muda solamente de lugar, y no de costumbre)”라는 비아냥거림이었다. 거기에 나타난 께베도의 귀족적 우월감과 계서주의적 태도에는 근대 사회의 합리주의 지향성에 비하면 반동적 이데올로기요 시대착오적 이념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께베도가 봉착한 현실과 이념의 괴리, 그리고 언어적 긴장의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께베도는 사회의 모순은 비판하되 자신의 모순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전히 모순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고 상극적인 것 가운데서 조화와 섭리를 찾았다. 감각적 해학을 지향하는 관능성과 무절제성, 탐욕과 위선을 강렬하게 풍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적 모순과 이율배반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타락한 스페인인들의 구원과 갱생을 향해 열린 도덕적 계시로 여겼던 것이

다. 세네카는 지금은 안달루시아이지만 당시에는 Betica로 불렸던 로마 지방의 여러 고위직을 지내고 정치적 역할을 했던 로마 사람인데다가, 금욕주의는 당시 로마 지식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던 것이므로 세네카를 스페인 사람으로 그의 철학을 스페인 사상의 뿌리로 여기는 것은 기본 자료의 왜곡이라는 것이다.(J. L. Abellán.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Espasa-Calpe, Madrid, vol. 3, 1980, p.213) 바타온은 스토아철학과 기독교 진리를 조합시킨 께베도에게서 풍자정신과 종교적 의도를 결합한 에라스미즘의 진수를 지적했다. 사실 중세 카스티야와 카탈루냐 왕실에서 세네카는 각별한 주목을 받았으며 16세기에는 에라스무스의 종교적 덕목과 윤리관과 부합하면서 크게 번성했던 면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스토아주의가 절정에 달한 것은 17세기였다. 17세기는 스페인의 정치적 쇠퇴가 지속되던 시대였으며 이 무렵 스페인인들이 체험하게 된 역경과 좌절을 위안받는데 바로크 문화에 스토아 정신이 일부를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Erasmo y España, FCE, México, 1980, p.775).

다. 스토아주의가 기독교 정신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껀베도에게 새타이어적인 것은 스토아적인 것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다.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헛된 평판이나 권력과 부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은 한편으로 금욕주의적인 훈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 가치에 눈멀고 부패한 사회에 대한 독설로 나타났다.

스토아적인 것은 껀베도의 정치 사상의 배경을 이루기도 했다. 사실 껀베도는 자연 이성을 내세우고 민중의 복지를 위한 군주주권주의를 제창했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와 일치했지만 그것은 마키아벨리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키아벨리처럼 이성을 도구로 수용했지만 그것은 현실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환멸을 극복하고 지각의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리하여 마키아벨리즘과 독특하게 결합된 스토아 사상은 타키투스주의 정치철학을 낳았다. 타키투스주의는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고 심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교화를 강조했다. 유럽 역사가 합리주의를 향해 근대사의 물꼬를 트고 관념과 도덕적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 이념을 추구해가고 있던 마당에 타키투스주의는 여전히 도덕주의적이고 카톨릭적이었으며 이상주의적이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반쯤 열린 현실지향주의였다. 마키아벨리즘이 스페인과 프랑스 등 외세의 지배하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부국강병을 위해 군주들의 실리 위주 정책책략을 촉구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국가 이익에 봉사하도록 요구했던 데 비하면, 타키투스주의는 동일한 국가발전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실리적 책략보다 군주의 덕성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웠다.

그라시아의 『영웅Héroie』은 그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대비된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신하들의 충고나 조언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비전과 판단에 따른 강한 결단력과 지도력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 데 비해 그라시아는 경험이 많고 지혜를 가진 신하들의 조언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줄 하는 덕치를 강조한다. 게다가 그라시아에게 군주는

여우이면서 사자 같은 힘과 지략만으로 신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처럼 자비롭고 도덕적이며 신실한 카톨릭인이어야 한다. 『영웅』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군주의 궁극적 이상은 성인이다. 껀베도와 마찬가지로 그라시아에게도 그리스도는 군주의 가장 이상적 모델인 것이다. 스토아 정신과 카톨릭 정신이 마키아벨리즘과 융합된 타키투스주의는 종교적 영감으로 생활과 사회의 합리화를 추구한 에라스미즘의 정치적 적용이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네오스토이시즘이나 타키투스주의의 비판과 개혁은 사회나 제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향해서 있다. 개인의 수련을 통해 덕을 기르고 자기완성에 이르러야 한다는 인문주의적 모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껀베도의 작품들이 개인의 도덕적 각성과 교정을 촉구하는 것처럼 그라시아의 대표작 『비판자 *El Criticón*』도 수련과 교육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어 가는 지적 순례 과정을 그리고 있다.³⁷⁾ 그러므로 기지주의는 언어의 수사법인 동시에 네오스토이시즘과 타키투스주의와도 상통하는 미학이었다. 껀베도에게도 그라시아에게도 기지를 통해서 현실을 통찰해 수신하고 도덕률을 강화하며 자기완성의 기독교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지적 훈련이었다.³⁸⁾ 그라시아를 성장시킨 예수회 교육은 기지주

37) 수련은 기만적인 현실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만의 샘’(*El Criticon*, I, vii) 일화는 기만과 환멸의 바로크적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로테우스가 안드레니오와 꼬리멜로를 기만의 샘으로 인도하여 안드레니오가 ‘기만의 샘’에 눈을 씻고 현실에 눈이 멀게 되자 프로테우스의 철저한 신봉자로 변한 안드레니오는 “분별 있는 자로 혼자 남는 것보다 함께 바보가 되는 편이 낫지요”라고까지 말하지만 꼬리멜로는 안드레니오가 기만에 빠져 있음을 일깨워준다. 기만의 샘에 눈이 씻겨 세상을 기만적 색깔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인간들에게 바로크의 미학은 기만에서 깨어날 것,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볼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여기서 중세가 청각이 지배한 시대였다면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시각이 지배한 시대였다는 점도 읽을 수 있다. 크리틸로는 “하늘의 섭리가 우리 앞 쪽에 눈을 주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I, 6, 565)”고 역설한다.

38) 그라시아는 인간이 나약성을 깨닫는 데서 인격수련과 자기완성의 과정으로

의적 감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오스토이시즘과 타키투스주의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네오스토이시즘과 타키투스주의는 다같이 개인의 금욕적 수련과 도덕적 자기혁신을 강조하면서도 현세적 가치들의 무상성에 대한 염세적 태도를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³⁹⁾ 『비판자』의 말미에서 덕은 영웅적 가치이며 덕을 통해서만 불멸에 이르게 됨을 확인하지만 그곳은 또한 명예의 극장 teatro de la Fama이라는 공허한 무대에 불과한 것임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그라시아의 절충적 태도는 역사에 대한 진취적 신념에서라기보다 스페인 역사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깨달은 뒤의 고통스러운 체념에서 우러나는 것이다.⁴⁰⁾

나아갈 수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목표를 추구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데서 계베도와 동일한 메시지를 제시하면서도, 계베도가 완성적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 독자에게 매개시키고 있다면 그라시아의 목적은 새로운 모델을 문학적으로 창조해내려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Haftor, Monroe Z., *Gracián and Perfection. Spanish moralists of the Seventeen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66. p.114).

39) 계베도에게서 스토아주의는 정신적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 순탄치 못했던 생애의 좌절들이 스토아적 도덕 모델과 행동 윤리에 매혹되게 했다는 것이다. 질병, 궁핍, 관재와 욕살이, 연상의 과부와 가졌던 불행한 결혼생활 등 고난이 지속된 삶과 그러한 삶의 역경을 초래한 사회에 대해 현실 부정적이고 금욕적인 스토아주의를 통해 위안을 찾았을 법하다. 더 나아가 종교전쟁의 와중에서 정신적 혼란을 겪었던 유럽 사회가 17세기부터 혹독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나타난 기존 가치와 질서에 대한 회의, 삶의 찰나성에 대해 염세적이며 차안의 안식을 포기하고 피안에서의 구원을 준비하려는 도파적 스토아주의 모랄이 득세해갔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40) 그라시아는 낙관적이기에는 스페인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다.(Correa-Calderón, *op.cit.*, p.240). 스페인 사회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합리적이고 진보적 의미의 비판정신은 없었다. 이를테면 그라시아는 스페인이 이웃나라들에 비해 창세기 이래 로마인의 업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는 미개한 땅으로, 산은 미개적 상태요, 강은 향해 불능의 자연상태이며, 들은 황무지요 대지는 미개간지라고 아무런 산업도 일으키지 못한 스페인의 낙후성을 한탄하고 있다.(Criticón, III, 9). 계베도도 다수의 소네트를 통해 펠리페 4세의 실정을 비판하고(‘Al mal gobierno de Felipe IV’) 국왕 펠리페 4세가 직접 전투의 선봉에서 스페인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그러므로 네오스토이시즘과 타키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에는 몰락해가는 스페인 귀족 사회의 보수주의와 복고적 향수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교조적 도덕주의가 자리잡고 있던 것이다. 네오스토이시즘과 타키투스주의는 근대로 변화하는 현실과 여전히 봉건적인 정신 사이의 모순된 의식구조를 반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것은 국력의 쇠퇴와 도덕적 타락에 직면한 스페인 문제의 해결 방식을 봉건적 계서주의와 카톨릭 섭리주의에서 찾으려 했던 귀족 계급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근대 사회의 개인주의 정신을 오히려 억압하는 현상유지 이데올로기였으며 귀족과 성직계급의 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던 셈이다. 봉건 체제에서 근대 사회로 나아갔던 서구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역사적 변화를 거부하고 봉건 전통으로 역행하려는 수구적 이데올로기였다.

마찬가지로 기지주의는 스페인 귀족 계급의 사회적 모순과 정신적 불안을 반영하는 미학적 표현이다. 마키아벨리, 토마스 모어 등 서구 작가들이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를 창조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공고라, 궤베도 또는 그라시안 같은 스페인 작가들은 복고적이거나 기껏해야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이념적 보수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군주론』에서 『유토피아』에서 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다루어지는 세계는 인간의 세속적 현실 문제들이었던 데 반해 『꿈과 사색 *Sueños y discursos*』이나 『영웅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피안과 차안을 넘나드는 얘기들, 성과 속 사이를 넘나드는 초월적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거기에서 기지는 현실적으로 넘나들 수 없는 극단적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게 하는 미학적 장치였던 셈이다. 기지 자체가 이미

촉구하는가 하면, 스페인 민족 전체의 퇴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Sobre el estado de la Monarquía’) 스페인의 구원을 갈구한 열렬한 애국자요 낙관론자이기는 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스페인의 붕괴가 막을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고 체념하기에 이르렀다(Cenilla, M. Jaramillo, *Personalidad y pensamiento político de Quevedo*, Maracena, Granada, 1981, pp.107-108).

그러한 괴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학적 원리가 상극의 조화라는 모순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 기지의 구조적 본질이 있었으니 말이다. 기지주의 미학은 모순의 미학이요 불안정한 균형을 쫓는 미학이다. 타키투스주의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상극적 대립을 조화와 덕성의 이름으로 은폐시킨 불안정한 정치적 사유 결과에 불과했던 것처럼 기지주의 도덕과 현실은 물론 진실과 허위, 미와 추 사이의 이중적 가치의 모순된 절충주의였던 것이다. 비유든 상징이든, 비교든 과장이든 이해할 수 없는 양극단 사이에서 숨은 관계를 드러내 의미를 창조하는 절충적 기지주의야말로 합리적 현실주의의 근대적 물결을 피해가며 성스러운 카톨릭 이상에 안존할 수 있게 하는 데 제격이었던 수구적 미학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비록 수구적 이념의 표현이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기지주의는 수구적인 표현을 통해 근대성을 표현해낼 수 있었다. 그라시아는 극단적인 것 사이의 융합이라는 모순의 미학을 기지의 원리로 정립하였거니와, 메이May는 그와 같은 내적 논리의 교란이 바로 그라시아의 염세주의의 원천이자 근대적 문학 감수성의 시원이라고 지적했던 것이다.⁴¹⁾ 또한 아메리코 까스트로도 께베도를 가리켜 그의 근대성은 존재의 모순을 감지한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인간 존재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부재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께베도의 명제에서, 삶에 대한 절박하고 필사적이며 강렬한 의지와 더불어 모든 가치와 모든 현실을 부인하는 모순을 범하는 데서 께베도의 근대적 지성은 잉태되고 있다는 것이다.⁴²⁾ 께베도에게서든 그라시아에게서든 기지주의는 모순을 불합하는 지적 도덕적 미학적 실험이었으므로 네오스토이시즘과도 타키투스주의와도 께를 같이 하는 보수적 절충주의 이념을 내포하는 동시에 그러한 보수적 절충주의가 근대에 대한 저항적 표현이라는 사실의 드러냄을 통해 반증적으로 근대성

41) *op.cit.*, pp.39-40.

42) "Escepticismo y contradicción en Quevedo," *Humanidades*, XVIII(1928), p.17.

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계몽적 이성과 경험과학의 시대적 조류 앞에 비이성적인 환상과 반논리적 상상력이 두드러진 반면 합리적 분석력을 결핍하게 되었던 스페인 근대사의 한 단면을 반추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데카르트가 새로운 근대의 패러다임을 정립했던 데 비하면, 국외자연했던 공고라도 현실과 이상의 극단적 대립을 드러낸 껍데기도, 더 나아가 양자 사이의 일정한 균형과 절충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해 눈을 떴을 법한 그라시아노, 불행하게도 서구 근대사에 부합하는 전향적 사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⁴³⁾

5. 문화적 정체성

여기서 기지주의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스페인적 미학인가 하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사실 기지주의는 스페인만의 현상도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이 득세하고 스타일의 분리 원칙과 품위 적정률 decorum이 강조되었던 16세기에 반해 17세기는 모방을 초월하는 상상력이 강조되었거니와 agudeza와 concepto은 그 전형적인 표본이다. 기지론에 관해서도 그라시아의 『기지의 예술Arte de ingenio』(1942), 『예지와 기지의 예술Agudeza y arte de ingenio예지』(개정증보판, 1648) 뿐만 아니라 빼레그리니Matteo Peregrini의 『예지론Della acutezz』(1939), 빠야비치노Sforza Pallavicino의 『대화 법에 관하여Trattato

43) 물론 스페인 바로크 문학이나 기지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독단적인 것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쇠퇴해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유럽 일류 강국으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스페인과 스페인 왕실에 대한 질서와 경쟁심에서 퍼부어졌던 흑색전설Leyenda Negra 전통의 잔재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독까지 스페인의 질병으로 와전될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해도 수긍할 만하다. Zárate Ruiz, Arturo, p.114.

dello stilee del dialogo』(1646)와 『기지의 샘*Il fonti dell' ingeno*』(1650), 테사우로Emanuele Tesauro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안경*Il cannocchiale aristotelico*』(1654), 페레이라Francisco Leitaof Ferreira의 『신 기지 예술*Nova arte de conceitos*』(Lisbon 1718, 1721) 등 이론적 저술이 널리 유포되었다. 기지주의는 스페인은 물론 이탈리아와 영국 등 17세기 서구문학사의 보편적 범주에서 이해될 문제인 것이다. 돈John Donne의 형이상학적 시 장르가 그렇고 셰익스피어의 아이러니와 회의적 문제의식에도 17세기를 풍미한 기지주의의 근간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17세기에만 한정된 미학적 현상도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메타포를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동질적인 것의 직관적 지각’이라고 정의했다. 15세기에는 단순한 사물의 지각sensus과 이를 분별하고 분석하는 이성ratio, 그리고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지력intellectus의 세 단계를 나누고 차이들을 조화시키고 종합하는 지력을 가장 높은 지적 단계로 상정한 꾸사Nicolas de Cusa(1401-1464)의 이론이 있었다.⁴⁴⁾

그렇더라도 유독 스페인 바로크 문학에서 기지주의가 극적으로 절정을 이룬 것은 무언가 새로운 설명을 필요로 한다. 가르시아 베리오Antonio García Berrio도 기지주의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이의 밀접한 상호영향하에 전개되었음에 주목하면서도 이탈리아 기지주의가 비주류 경향에 지나지 않았고 표면적 경향에 불과했던 데 비해 이상의 좌절을 겪으며 세상을 연극처럼 살았던 궁핍한 몽상 시대의 스페인인들에게서야 비로소 신랄한 기지주의 예술이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⁴⁵⁾

그렇다면 기지주의 예술에서 17세기 서구 보편의 가치를 넘어, 공고라나 계베도나 그라시안 각 개인의 심리적 한계를 넘어 각인된 스페인적 가치와 에토스는 무엇인가? 한가지 가능한 답으로 바로 ‘너무나 카톨릭적인’ 벗어날 수 없는 전통의 질곡 가운데 길들여진 집단주의 모랄 성향

44) Frederick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vol. III, London, 1953, p.233.

45) *Espana e Italia ante el conceptismo*, CSIC, Madrid, 1968, pp.233-234.

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카톨리시즘 전통은 스페인인들을 이성의 자유에 눈뜨게 하기보다 교조적이고 통제적인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왔다. 그것은 위기에서 체제를 방어하려 했던 카톨릭 교회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의 정치적 선전 책략과 이데올로기로 귀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맞게 된 역사적 위기의 책임을 스페인의 각 개인들의 도덕성 타락과 신앙의 약화로 전가시켰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스페인 사회 전체가 근대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견제하고 집단주의적 모랄에 집착하게 길들여졌다. 르네상스 이래 서구의 사상이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전제하고 사회 제도를 통해 진리를 개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녔다면, 스페인인들은 사회보다는 개개인의 정신적 개혁에 더 집착했던 것이다.⁴⁶⁾ 그리시안도 “사회가 타락했다고 믿는 혁명가가 아니라, 사회의 혼돈은 물론 개인 자신의 타락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개인”의 도덕적 덕성의 부활을 역설한 conformist였을 뿐이다.⁴⁷⁾ 궤베도가 문제삼고 풍자한 것도 사회제도 구조가 아니라 인간 개인의 과욕과 천박한 도덕적 타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Tierno Galván이 지적했던 대로 궤베도는 집단적 성향에 도전해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던 예외적인 스페인 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의 완벽성 추구를 위해 투쟁하다 집단주의 전통에 희생된 인물이었다.⁴⁸⁾

46) 이슬람 사상은 서구 사상과 반대로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개혁을 통한 개선을 믿었다. 사물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형이상학은 윤리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스페인의 타키투스주의는 아라비즘의 영향이 아닐까?

47) Welles, María L., *Style and Structure in Gracián's El Criticón*,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76, pp.159-160.

48) 궤베도의 과장은 얼마간 지나친 과장, 과장의 과장이다.[...] 이처럼 세련됨 없이 범속한 감각주의로 전락한 것은, 그리고 동시에 궤베도가 보여준 심층적 내면 탐색 능력은 그 자신의 과장을 통해 돈 프란시스코의 바로크적 품성이 가짜임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베도는 바로크적이다. 아마도 강제로, 그러나 건설적이며 불가항력적으로, 바로크의 국민적 생활에 쳐넣어진 수많은 스페인인들 중의 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궤베도는 바로크적 공동체에서와 달리 생존의 차원에서 은사와 자연에 의존하지 않는다. 첫 인상과는 달리

계배도가 계몽주의적 단면을 지녔으면서도 계몽주의적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스페인의 집단주의적 전통과 정서의 영향 때문이었다. 기지적 언어를 필요로 했던 신랄한 도덕적 풍자와 네오스토이시즘의 이데올로기에도 개인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스페인 사회 전체의 유기적 일체성의 균열에 대한 조바심이 담겨 있을 뿐이다. 개인의 이성을 계발하고 자유를 고양하려는 자유주의 정신보다 자유를 통제하고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이성보다 집단의 모랄을 중시한 문화적 정체성은 카톨릭주의의 전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스페인인들에게서 현세와 내세의 단절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내세의 구원은 현세에서의 금욕과 덕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카톨릭주의는 하나의 이상인 동시에 언제나 현전하는 현실이었다. 카톨릭의 세계관은 조음의 세계관이었다. 세계는 전체와 부분들이 상호 조음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상의 어느 것이든 제각기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음의 세계관에서 부조리는 있을 수 없다. 기지주의 미학은 여전히 조음의 세계관 안에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공고라의 『고독』 가운데 플라토니즘은 은밀하게 아리스토텔리즘과 상통했으며 계배도가 그로테스크하게 희화화한 현실에서 희극과 비극은 불가피하게 희비극으로 혼용되며 그라시아에게 기지는 상극의 모순 가운데 조화를 찾는 종합의 작업이었다. 개인의 이성적 자유보다 집단적 체험이 중시되는 가톨릭 사회에서 시인의 기지주의 체험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조음관계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경이로움과 감탄admiration을 자아내는 기지적 창안inventio를 강조한 스페인 바로크 미학의 경이로움이자 모순과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기지가 조음적 세계관의 한계를 깨닫고 문학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고 현실을 추상화 관념화 초월화시키는 형이상학

자연의 차원을 생명력의 저지할 수 없는 원천으로 은사의 차원을 그 위에 또 다른 균형의 반영 차원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이성의 차원과 근사한 어떤 것으로 구별한다. 그 때문에 때때로 그는 거의 계몽주의자로 이해되게 된다.[...] ("Quevedo," *Francisco de Quevedo*, Taurus, Madrid, pp.32-33).

에 이르렀던 서구 기지주의의 귀결과 달리, 스페인 기지주의자들에게 관념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현재화되어야만 했다. 양립불가능한 현실과 관념의 두 세계를 양립시키려는, 조응불가능한 현실과 언어를 기지를 통해 조응시키려는 스페인 기지주의의 모든 노력은 불가피하게 그 노력의 강도에 비례해 그만큼 짙은 역설과 갈등의 미학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순과 역설을 현실로 이해하는 데 스페인인들은 무력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카톨릭의 집단주의 모랄이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프로테스탄트를 용납할 수 없었던 카톨릭 교회에서 진리는 항구부동 절대적이어야 했으며 어떤 역설과 아이러니도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것처럼 강한 교조적 집단주의 전통이 스페인인들로 하여금 근대 정신의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인 진리의 세속적 상대주의와 진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방해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도그마티즘과 영원한 현재에의 갈망은 카톨릭 교회의 선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된 것인가? 아니면 스페인인들의 문화적 전통과 인류학적 에토스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한 것인가? 다시 말해 보수주의의 일종의 권력 작용인가, 문화심리적 결정인가? 또 그러한 카톨릭적 집단성을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단정지어도 될 것인가? 흠Martin Hume은 스페인 문학이 영국 문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스페인 민족은 역사의 여명기부터 어떤 다른 민족보다 자기중심적인 영혼을 소유하여 그 영혼을 우주가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며, '나'와 신의 결합을 지상명제요 그것에 반하는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아 왔다고 보았다.⁴⁹⁾ 그러나 그러한 특징을 내재적 기질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되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수세기간의 피지배와 수복 그리고 공존과 추방 결별의 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동방 민족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편집증적 적대감과 그 반작용으로 심화된 자기종교에 대한 광적 집착이 스페인을 그 어느 민족보다 집단적

49) *Spanish Influence on English Literature*, Haskell House, New York, 1964, p.214..

으로 응집된 나라로 만들었을 것이다. 반종교개혁 정신은 상황의 원인을 체제보다 개인들 자신에게 돌려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개인의 도덕적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니 카톨릭 교회의 방어적 전략과 스페인인들의 복고적 보수주의 정신은 전혀 별개의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에토스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가운데 파악되는 역사적 현실이다. 스페인 역사 전체를 자기 정체성 확립의 과정으로 본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질적 문화 토양에서 스페인의 자기 정체성 확립은 카톨릭 왕조이래 지속되어왔다. 카톨릭왕조와 합스부르크왕조 시기가 대내외적으로 스페인의 이념적 정치적 통일을 완성한 시대였다면 계몽주의 이후는 북유럽에 대한 자기정체성 확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⁵⁰⁾ 그 정체성의 문제의식은 20세기를 맞는 98세대에 의해 크게 부각되었다. 정체성은 역사적 문제인 동시에 그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역사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기지주의는 17세기 스페인 역사의 물적 토대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크게 작게 때로 소멸하고 때로 부활하며 스페인 민족의 전통 속에 살아있는 문화적 결정 요인과 맞닿아 있음에 틀림없다.

50) 비센스 비베스Jaime Vicens Vives는 스페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기로 귀족문화의 우위가 민중문화의 우위로 역전되던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그 예로 투우, 플라멩고, 집사문화, 마히스모 등을 꼽았다 (*Aproximaciones a la historia de Espana*, Editorial Vicens Vives, Barcelona, 1962, p.145).

【Resumen】

La estética conceptista y su identidad cultural

Kim Chun-Jin

Aunque el conceptismo estaba universalizado en su práctica por toda la Europa barroca del siglo XVII, era una estética explorada preferentemente entre los escritores castellanos en su práctica más ancha y profunda que entre los de otros idiomas europeos. Así en España el conceptismo reflejaba un momento crítico de la estética clásica, momento por tanto transitorio en que iba agotándose el estilo clásico para acoger a una nueva sensibilidad moderna.

En Luis de Góngora, particularmente en las *Soledades* y en el *Polifemo*, se nota el primer síntoma del agotamiento del clasicismo y un advenimiento de una nueva estética hedonística. Francisco de Quevedo se enfrentó con Góngora atacando el culteranismo que iba abandonando la preceptiva clasicista, pero el mismo Quevedo seguía sin saber el camino abierto por Góngora al orientarse hacia una estética extremadamente figurativa, bien deformativa o bien exageradora. No había excepción entre los escritores barrocos que no cultivara los conceptos en sus escritos sea en verso o sea en prosa. De suerte que finalmente Baltasar Gracián llegó a sintetizar la extensa práctica conceptista en una teoría estética, filosófica y moral en la *Agudeza y arte de ingenio* a mediados del siglo XVII.

Sin embargo, los tres autores más destacadamente conceptistas, Góngora, Quevedo y Gracián, eran ideológicamente definibles como

conservadores contrastándose con la nueva orientación del pensamiento contemporáneo, entre cuyos representativos máximos debemos contar el italiano Maquiaveli. Opuesta pero paralela al mismo tiempo a esa nueva corriente ideológica se entiende que la estética conceptista española reflejaba una realidad histórica contradictoria de la España barroca. Su estilo es de una estética de contradicción en que se manifestaba la inquietud de desequilibrio y desarmonía, una tensión de discordia entre lo nuevo y lo pasado. Gracián definía el concepto como “un acto del entendimiento, que exprime la correspondencia que se halla entre los objetos,” y añade que la correspondencia debe ser tanto más estética cuanto más diferentes y contradictorios sean los objetos que se tratan. De ahí que podemos decir que el concepto es el fruto de un alma contradictorio que pretende sintetizar lo inarmonioso en lo armonioso. Lo mismamente contradictorio era el sueño de la nobleza y hidalgos españoles que querían seguir viviendo el glorioso pasado imperial y resistiéndose la oleada de la modernidad racional capitalista dirigida por parte de los protestantes.

De esta manera, podemos pensar que el conceptismo refleja, más allá de un *zeitgeist* barroco, un ethos y una identidad cultural que se mantiene latente en la España tradicional hasta nuestro tiempo. A través de una larga tradición histórica de conflictos étnico, religioso y social los españoles venían formándose un alma egocéntrica en cuyo alrededor se pensaba que gira el universo, y por tanto la unión de su yo con Dios era la verdad imperativa, transcendente y eterna que no se toque ante cualquier cambio histórico. Una reserva imprescindible y, al parecer, contradictoria a esa conclusión es el hecho que ese ethos español se intensificaba

más que nunca en la circunstancia histórica, única y particular de la España barroca en que se les imponía la misión de defender la Iglesia Católica.